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및 예배문서에 나타난 인간의 이원론적 표현들의 함의

Implications of Anthropological Dualistic Expressions
in the Confessions and Liturgical Documents
of Reformed Churches

조성국
| 기독교교육과 부교수, 철학박사 |

I. 서론	200
II. 인간 존재의 이원론적 표현들	204
1. 그리스도의 이원성	204
2. 육체와 영혼	208
3. 성례의 이원적 의미	211
4. 본성과 삶에서의 이원성	214
5. 이원적 구조를 암시하는 표현들의 구체적 의미	216
III. 결론	222

조성국 교수

고신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남아공)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 에서 (기독교)교육철학을 공부하여 철학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네덜란드)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방문교수로 연구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복음 그 신령한 은사」(SFC, 2001), 「한국현대신학과 한국교회의 구원관」(클릭, 2002), 「돈과 경제와 그리스도인」(클릭, 2002), 「약속과 믿음 사이에서」(SFC, 2004), 「메시아적 모형의 리더 다윗」(클릭, 2005) 등이 있다.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이며, 기독교교육사, 기독교인간학, 기독교교육철학, 현대기독교교육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요약문 :

개혁교회의 기독교철학자들과 일부 신학자들의 최근 연구들은 인간에 대한 전통적 이원론을 비판하면서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 및 예배문서의 기초인 이원적 구도와, 또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이원적 표현들의 함의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 주제에 대한 위 문서들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인간의 이원적 구성개념, 곧 육체와 영혼은, 철저한 구별개념이기보다는 나란히 그리고 한 쌍으로서 인간의 전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이나 영혼 없는 육체개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인간의 영혼은 신적 기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 기원에 속한 것이고, 신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승격되는지도 않는다. 인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다르다. 영혼(siel)은 완전히 인성에 속한 것이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실제적 중심이다.

셋째, 인간은 육체로 지음 받았고, 영혼과 더불어 인간존재를 형성하고 있다. 육체도 영혼과 꼭 마찬가지로 운명과 요구 앞에 있고 부활로 영생할 것이다. 인간의 존재에 대한 관용적 표현에 있어 육체는 순서상 영혼에 앞선다. 육체 자체는 죄의 근원이 아니다.

넷째, 이원성은 인간존재의 구성개념을 넘어, 구원과 성례 및 기독교적 삶의 교리에 전제되어 있다. 이 구도는 존재론적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차원적 혹은 방향적 구도로서의 이원적 구도이다.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초월적인 차원과 방향성을 함의한다.

이상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들은 인간이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원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문화와 일반 종교들의 이원론적 함의와 달리 통전적인 인간이해를 향한 통찰과 함의를 동시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이원론, 인간, 인간론, 영혼, 육체, 개혁교회

Implications of Anthropological Dualistic Expressions in the Confessions and Liturgical Documents of Reformed Churches

Contemporary Christian philosophers and a few theologians in the Reformed churches have criticized the traditional anthropological dualism between soul and body, but didn't directly deal with the dualistic schema and expressions of the confessions and liturgical documents of the Reformed church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n these words and schema in this research, the following specific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found:

First, the anthropological dualistic concept between body and soul does not intend that man has two separated substances conflicting each other, but emphasizes the totality of man. These documents didn't positively develop the concept of soul separated from body, or the concept of body separated from soul.

Secondly, soul is not derived from Divine substance, but from human origin. It will not be updated or changed into a Divine soul even in the future. Human soul is different from Christ's divinity. It is man's center, belonged to humanity, which needs to be saved from sin.

Thirdly, man is created as a body, and the body is composed of man himself. The body has the same destiny as the soul, and will enjoy eternal life with soul. Interestingly, the order of the two in the

documents is generally body and soul, not soul and body. The body itself is not the origin of sin.

Fourthly, duality is not confined within anthropology, but is the basic schema of salvation doctrine, Sacraments, and Christian life. It is the supposed schema of being substance, furthermore implies dualistic dimensions and directions. It is certain that the spiritual begins with the physical. However, the spiritual transcends the physical into the spiritual dimension and direction.

It is certain that the confessions and liturgical documents have a dualistic schema and expressions in anthropology, but the dualistic is not the same as the Greco-Roman or non-Christian dualism. In fact, the documents imply the holistic view of man. Therefore, Reformed philosophers and theologians find actual holistic insights and implications from the superficial dualistic expressions of these documents without difficulty.

Keywords:

dualism, man, anthropology, soul, body, Reformed churches

I. 서론

고대교회로부터 전통적으로 기독교교회는 인간을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과 사멸하는 육체로 이루어진 통일적 존재로 간주해왔다. 20세기 이전까지 개혁교회도 이러한 구성적 존재 개념에 대하여 거의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1930년대에 개혁주의 세계관에 집착했던 안터니스 안서(Antheunis Janse, 1890-1960)가 전통적인, 인간의 이원론적 존재 개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는 헤프(V. Hepp), 리델보스(J. Riddelbos), 카이퍼르(H. H. Kuiper) 등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¹⁾

그러나 인간의 이원론적 개념에 대한 비판은, 20세기에 발전한 기독교철학 분야의 학자들에게서, 특히 1930년대 이후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성경적 인간관에 관심을 가졌던 초기 기독교철학자 폴렌호벤(D. H. Th. Vollenhoven)이 안서의 인간관에 깊이 동감하였고, 포프마(K. J. Popma), 페이더르(B. Teider), 폰크(C. Vonk)는 안서의 인간관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포프마는 안서가 당시에 인간 본질의 전인적 통일성 개념을 명료하게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높게 평가하였다.²⁾

1970년대 이후 더 많은 기독교철학자들은 인간에 대한 전통적 이원론 개념이 비기독교적인, 그리스철학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기독교 사상가들에게 끈질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비판하였다. 판델발트(B. J. van der Walt)³⁾ 와 파울러(S. Fowler)⁴⁾ 는 칼빈도 이

1) B. J. van der Walt, *Antheunis Janse van Biggekerke 1890-1960*, Potchefstroom: PU for CHE, 1989, 16, 20-21.

2) *ibid.*, 12, 17.

원론적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였고, 트로우스트(A. Troost)⁵⁾ 와 블로서르(P. Blosser)⁶⁾ 는 기독교철학의 대부였던 도예베르트(H. Dooyeweerd)조차도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이원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이원론적 개념에 대한 비판은 단지 기독교철학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개혁신학자인 베르카우어르(G. C. Berkouwer)⁷⁾ 과 리델보스(H. Ridderbos)⁸⁾ 와 후케마(A. A. Hoekema)⁹⁾ 는 성경이 인간에 대한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쿠퍼(J. W. Cooper)의, 이원론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서 언급된, 이원론 개념에 대한 비판적 표현들을 열거해보면, 폰메이엔펠트(F. H. Von Meyenfeldt)는 인간의 이

3) B. J. van der Walt, *Heartbeat: Taking the Pulse of Our Christia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Heritage*, Potchefstroom: PU for CHE(IRS), 1978a, 240, 245, 251.

4) S. Fowler, The persistent dualism in Calvin's thought, (in B. J. van der Walt, ed., *Our Reformational Tradition: a Rich Heritage and Lasting Vocation*, Potchefstroom: PU for CHE, 1984), 345-346.

5) A. Troost, Kritiek van dr. J.D. Dengerink op de antropologie van H. Dooyeweerd, *Philosophia Reformata*, 54(1), 1989, 65-82.

6) P. Blosser, Reconnoitering Dooyeweerd's theory of man, *Philosophia Reformata* 58(2), 1993, 192-209.

7) G. C. Berkouwer,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81, 206.

8) H. Ridderbos, The Biblical words for man in the Pauline writings, (in A. H. De Graaf & J. H. Olthuis, eds., *Toward a Biblical View of Man: Some Readings*,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978), 55.

9) A. A. Hoekema, *Created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205-213.

10) J. W. Cooper, *Body, Soul & Life Everlasting: Biblical Anthropology and the Monism-Dualism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89.

원론은 극도로 비성경적이며 성경에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¹¹⁾ 판델발트(B. J. van der Walt)는 이원론적 인간관이 건전하지 못하고, 인간학적 정신분열증을 야기하며, 유해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그런데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원화하는 이원론적 개념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이러한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서양 기독교사상의 그리스적 영향 혹은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사상사적 비평적 접근, 혹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을 성경의 해당 맥락 안에서 규명하여 종합하는 성경신학적 연구에 따른 것이며, 정작 개혁교회의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고백문서들과 예배문서에 대하여는 아주 간접적이고 피상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비판적 접근만을 시도한다는 점이다.¹³⁾

한편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개혁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고백문서와 예배문서들을 직접 비평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교리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부담감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교회 고백문서와 예배문서가 전인적 인간관을 위한 통찰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철학의 근본문서이면서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주된 통찰을 제공해 온 개혁교회 고백문서 및 예배문서

11) F. H. von Meyenfeldt, The Old Testament meaning of heart and soul, (in A. H. De Graaf & J. H. Olthuis, eds., *Toward a Biblical View of Man: Some Readings*,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978), 74.

12) B. J. van der Walt, *Horizon: Surveying a Ro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 Thought*, Potchefstroom: PU for CHE(IRS), 1978b, 106, 115.

13) 연구자가 2007년 5월 남아공화국 포츨스트롬에서 판델발트(B. J. van der Walt) 교수와 만나 사적으로 대화하는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판델발트 교수는 신앙고백문서의 이원론적 표현들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많은 철학적, 신학적 연구들, 그리고 최근의 다양한 과학적 연구결과들과의 상호연관성 등을 근거로 이원론 비판의 타당성을 설명하려 하였다.

에 사용된 이원론적 용어 내지 표현들의 실제적 함의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연구 동기가 생성되었다.

본 연구는 성경적 인간이해를 위해 네덜란드계 개혁교회가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교회의 신앙고백문서(*Die Ekumeniese Belydenisskrifte*)」, 「하나를 이루는 세 가지 공식문서(*Die Drie Formuliere van Eenheid*)」, 「예배의식의 형식문서(*Die Liturgiese Formuliere*)」, 「기독교적 기도서(*Christelike Gebede*)」와 「교회규칙서(*Kerkorde*)」를 그 분석하여 이원론적 표현들의 실제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고, 연구의 범위는 그 해당문서들에 한정 한다.¹⁴⁾ 본 연구에서는 이 해당문서에 나타나는 표현들의

14) 개혁교회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들은 남아공화국 네덜란드어인 아프리칸스로 된 남아공화국 개혁교회의 문서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문서들은 시편송(Psalms) 책의 뒤편에 첨부되어 있다. 오늘날 아프리칸스와 네덜란드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한 언어표현상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시편송에 첨부된 해당문서(Psalmen)를 비교하였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문서와 예배문서들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고백문서인 1) 「보편교회의 신앙고백문서」에는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신경의 세 가지 전통적인 신앙고백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2) 「하나를 이루는 세 가지 공식문서」에는 네덜란드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서, 도르트교리규칙이 있다. 둘째로 예배문서인 3) 「예배의식의 형식문서」는 유아세례, 신앙고백서약, 성인세례, 성찬식, 출교선언의식, 출교자 입교의식, 말씀사역자와 선교사와 장로와 집사의 임직의식, 결혼식형식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4) 「기독교적 기도서」에는 성도들의 예배 및 공적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도모범, 식사기도, 아침과 저녁기도, 직분자들의 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문이 포함되어 있고, 5) 「교회규칙서」는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실제적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편교회의 신앙고백문서」는 주후 2-4세기경에 완성되어 교회에 수용된 것이며, 「하나를 이루는 세 가지 공식문서」에 속한 3개의 고백문서는 16세기의 여러 교회총회에서 승인된 후 1618-1619년 도르트레히트(Dortrecht) 총회에서 개혁교회의 공적 신앙고백문서로 수용되었다. 「교회규칙서」는 남아공화국 개혁교회의 경우 1862년 레더르스버르흐(Reddersburg) 총회가 1618-1619년의 도르트레히트규칙을 그대로 수용한 후, 여러 총회에서 마지막 86조를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서들은 고대교회의 전통 신앙고백을 수용하면서, 또한 종교개혁자들에게 의해 기초가 놓였고 그로부터 발전되어 확립된 교리들을 간명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문맥적 함의를 드러내는데 집중하므로 내용전개에서 교의신학자들의 교리해설문서들과의 비교 및 논의 작업을 시도하지는 않는다.

II. 인간 존재의 이원론적 표현들

개혁신학의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에서 인간의 이원론적 표현들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원성과 관련하여, 인간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표현으로서 쌍을 이루는 육체와 영혼(혹은 영혼과 육체) 라는 표현에서, 세례와 성찬에서의 구체적 물질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관련하여, 타락에 있어서의 인간 본성과 구속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요구되는 변화된 특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들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이원성

그리스도의 이원성 문제는 이미 아타나시우스 신경에서 별도의 조항들로 분명하게 구별되어 선언되고 있다.¹⁵⁾ 아타나시우스신경의 해당내용을 먼저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의 존재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 지거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분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존재로부터 임신되어 출생하심으로써 마리아로부터 나온,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온전한 인간의 조건인 영혼과 육신

을 가지셨으므로 인간됨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러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은 서로 충돌되거나, 분열되거나, 뒤섞여 있는, 곧 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신성이 불가피하게 변화된 것도 아니었다. 그 존재방식은 신성 안에 인성을 받아들여 한 분의 단일 인격(eenheid van die Persoon)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셔야 할 이유는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¹⁶⁾

그 분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신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의한 요청 때문이었다. 이처럼 아타나시우스신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분명하게 구별되면서도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점이다.

아타나시우스신경에는 본 연구의 관심사인 인간의 이원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할 때 인간존재의 온전한 인성을, “이성적 영혼(redelike siel)과 인간적 육신(menslike vlees)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다.¹⁷⁾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성적 영혼이 그리스적 전제에서처럼 신성에서 나오는, 곧 신적 기원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타나시우스신경에서 이성적 영혼은 온전한 인성에 속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그리스도처럼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인성의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단일 인격이라는 것이다.

인성의 두 가지 존재성이 단일 인격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단일인격 곧 그 분이 신성과 인성으로 서로 구별되면서도 한 분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방식과 같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성적 영혼과

15) Die Geloofsbelydenis van Atanasius, 22, 29-37.

16) *ibid.*, 29.

17) *ibid.*, 32.

육신이 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한 분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다.¹⁸⁾ 따라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영혼과 육신으로 구별되지만 서로 나뉘어 별개로 존재하거나 하나의 성질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간의 인성은 이 두 가지의 존재성을 가지면서도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은 네덜란드신앙고백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을 더욱 상세하게 해명한다. 그 강조점은 인성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관련된 것만 인간적 본성으로 수용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인간이 되기 위해 진짜 인간의 영혼도 수용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그 분이 인성의 두 존재성인 육체와 영혼을 완벽하게 수용하셔야 할 필요는 죄로 인하여 상실된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구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활도 그분의 육체의 진정성에 의존해있다고 보았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분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것이었고, 그 분이 참 인간이 되셔야 할 이유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⁰⁾

네덜란드신앙고백서에서도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단일인격이시면서, 그분의 인성 안에 육체와 영혼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물론 이러한 이원적 존재 방식의 필요는 구원의 필요에 의한 요청에 근거한다. 여기서 인간의 이원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18) *ibid.*, 37.19)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18.20) *ibid.*, Art.19.

부분은,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존재성을 모두 갖는 것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신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성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의 손에 부탁했던 것도 신성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육체에서 나온 진짜 인간의 영혼”이었다고 해명한다.²¹⁾ 따라서 인간 영혼의 기원은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서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에서 우선 그리스도의 이원성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요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할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하고 의와 생명과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온전한 구원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할 필요는 인간의 심판이 육체와 영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 둘 모두에 대한 대속자로서의 구원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다.²²⁾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짜 인간의 본성을 받았고, 인간성의 두 존재성인 육체와 영혼에 따라 사셨으며, 화목제물로 육체와 영혼 모두에 고난 받으심으로 영원한 심판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다.²³⁾

부활이후 그리스도는 인간적 본성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땅 위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과 관련하여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본성의 분리는 인격적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수용된 인성 밖에도 그리고 안에도 계시며 인격적으로 통일되어

21) *ibid.*22) *Heidelbergse katechismus*, 11,15-17.23) *ibid.*, 35, 37.(참고/ Formulier vir die viering van die heilige nagmaal. Gedagtenis).

있다고 고백한다.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에서 특이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육체와 영혼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적 본성”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 인간적 본성은 “살과 피”에서 온다고 표현한 부분이다.²⁴⁾ 이러한 표현은 예배의식의 형식문서인 세례의식서에도 반복되어 나타난다.²⁵⁾ 이러한 문서들의 표현들은 개혁교회 고백과 공적 문서들이 인간의 영혼이 속한 인간적 본성의 본질을 신성이 아니라 인성에서 찾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육체와 영혼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개혁교회 신앙고백과 공적 문서들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인간의 존재구조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내용으로 이루어진 「보편교회의 신앙고백문서」에서보다 그 이후의 비교적 상세한 교리문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서문에서부터 이 신앙고백의 주요내용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²⁶⁾ 물론 영혼과 육체의 구조에서 영혼의 구원이란 영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뜻할 수도 있으나 영혼과 육체의 구성 개념에서 볼 때 영혼의 구원이란 인간의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인간의 구원을 뜻한다. 여하튼 이 문서는 구원의 가르침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영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24) *ibid.*, 35.

25) *Formulier vir die bediening van die heilige doop aan volwassenes*

26)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서문.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창조문제도 육체와 영혼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땅의 재료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는 인간의 전체 본성에 영향을 미쳐 마침내 인간 존재의 두 차원인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표현한다.²⁷⁾ 따라서 육체와 영혼 모두가 상실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영혼은 이전에 그 안에 살았던 육체와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²⁸⁾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서도 제1문답에서부터 “육체와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⁹⁾ 그 첫 표현은 인간존재 및 삶의 전체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두 표현이 함의하는 모두에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이 둘 모두를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타락의 결과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죄의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그 모두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³⁰⁾ 따라서 그리스도도 육체와 영혼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며 그 결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셨다.³¹⁾ 비록 이 세상에서의 죽음에서 영혼만 그리스도께

27) *ibid.*, Art.14.

28) *ibid.*, Art.37.

29) *Heidelbergse kategismus*, 1.

30) *ibid.*, 11, 34.; 이러한 요점은 도르트교리규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영혼과 몸에 있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Dordtse leerreëls*, 2:1.)

31) *ibid.*, 37.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나 부활의 날 육체도 역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살아나 영혼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종국적 운명에 있어서 육체만으로 혹은 영혼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신경해설에 등장하는 “몸의 부활”이라는 표현도³²⁾ 죽음 이후의 이러한 분리 내지 육체의 상실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제시킨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가 성령의 전이므로 이 모두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³³⁾ 육체와 영혼 모두가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지 일상의 활동과 삶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없이 잠자는 동안에도 열망되는 것이어서 저녁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³⁴⁾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에서 특별히 확인되는 “육체와 영혼”은 많은 경우 이 양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존재방식을 나누어 설명하려는 맥락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한 세트로서 사용되는 문구이며, 한 쌍으로 표현된 그 순서에 있어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 방법인 “영혼과 육체”가 아니라 거의 언제나 “육체와 영혼”의 순서로 표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의도적 표현은 영혼의 지위를 신성에까지 높이려는, 일반적인 이교적 혹은 고대 철학적 시도를 억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32) *ibid.*, 57.33) *ibid.*, 26, 109, 121.34) *Christelike gebed: die Aandgebed*

3. 성례의 이원적 의미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문서와 예배문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례의 외적인 표현과 그 내면적 의미를 가시적인 표현인 육체와 실제적 영향을 받는 영혼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먼저 네덜란드신앙고백서를 보면, 세례는 외적인 물이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가 이루어질 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에 역사함으로써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설명한다.³⁵⁾ 따라서 비록 세례는 외적인 의식집행에 따라 육체에 실제 물이 뿌려지지만 사실상의 영향은 영혼에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도록 영혼을 씻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세례는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의식임 셈이다.

이러한 구별은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역할에 대하여 네덜란드신앙고백서는 이원적 차원으로 다시 구별하고 있다. 첫째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이며, 또 다른 차원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차원이다. 성찬에 사용되는 실제 빵과 포도주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지만, 성찬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차원이어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를 뜻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빵과 포도주는 육체의 양식이지만,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바는 영적 양식, 곧 영혼의 영적 삶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은 “영적 식사(‘in geestelijke maaltyd’)”로 칭해진다.³⁶⁾

하이델베르그교리문답서에서도,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육체에 대한 외적 세례행위를 통하여 마치 물이 육체의 더

35)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34.36) *ibid.*, Art.35.

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에 속한 영혼의 부정을 씻어낸다고 설명한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 보증된다. 그 결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례로 우리는 영적으로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다고 한다.³⁷⁾

성찬에 사용된 실제의 빵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다.³⁸⁾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육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육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님은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주신 표식이며 영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의도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 칭해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성찬이 의도하는 바는 빵과 포도주가 육체의 현세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영혼이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참된 음식과 음료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의 빵과 포도주가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되도록 효력 있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³⁹⁾

예배문서에서 성례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 모두 은혜언약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해명된다. 육체와 영혼의 이원성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 특히 의미 있는 표현은, 성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그분의 식탁에서 먹이셨으므로..”, 그리고 “내 영혼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라

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에 나타나는 바, 성찬이 영혼의 양식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표현들이다.⁴⁰⁾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개하고 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 곧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음식이다.⁴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정리한 교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가르침이 된다.⁴²⁾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교회 공적 문서에서 성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원성의 차원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성례는 이러한 이원성의 특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의 물과 빵과 포도주가 인간의 육체에 적용되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와 성령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성례가 성령을 통하여 영혼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례는 사실적이고 현세적인 육체만을 위한 목욕과 식사가 아니라 사실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영혼을 위한 언약의 의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례에서 육체와 영혼의 구분은, 엄격한 존재 구조적 성격 이라기보다는 차원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존재구조처럼 전체가 양분되어 둘로 나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차원이 별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영혼에 이루어지는 일이 육체의 소재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육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례에서 영혼은 육체를 분리시키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 내면적인 혹은 초월적인 차원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7) Heidelbergse kategismus, 69,73.

38) ibid., 75.

39) ibid., 78-79.

40) Formulier vir die viering van die heilige nagmaal, Lofverheffing.

41) 'n Gebed voordat uit die kategismus onderrig gegee word; Gebed voor die ete.

42) Nederlandse geloofsbelydenis 서문.

4. 본성과 삶에서의 이원성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문서 및 예배문서는 타락의 결과로 초래된, 본성과 삶에서의 이원적 성격을 일상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인간이 비록 땅에서 지음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에서 본성적으로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땅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육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시기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⁴³⁾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고 할 때 그 인성 혹은 인간의 본성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했다.⁴⁴⁾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죄를 통한 타락은 이 둘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인간의 전체 본성, 곧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양자 모두에 있어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타락의 결과 인간의 본성은 임신과 출생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하며, 항상 죄의 경향성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며, 선한 일을 생각할 수 없고, 물론 행할 수도 없다.⁴⁶⁾ 그러므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언되고 있다.⁴⁷⁾

43) Dordtse leerreëls, 3-4:1

44) Heidelbergse kategismus, 35,48.

45)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 14.

46) Heidelbergse kategismus, 5,7,8,43,115,127; Dordtse leerreëls, 3-4:2; Doop van volwassenen, vroe; Gebed by die opening van die kerklike byeenkomste

47) Dordtse leerreëls, 33-4:16.

비록 본성의 빛 때문에 현세적 사물에 대한 지식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영적 지식 곧 구원의 지식을 얻거나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인도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⁴⁸⁾ 그러므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영적 이해의 관점에서 어두워졌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켜 어두운 눈을 밝히고 참다운 이해와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한다.⁴⁹⁾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중생되어, 인간 본성의 선한 의지가 영적으로 되살려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이고, 올바른 순종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진정한 그리고 영적인 새로움과 참된 의지의 자유가 있다.⁵⁰⁾ 이것을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삶”이라고 말한다.⁵¹⁾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위 세상에 속한 옛 사람의 죽음, 곧 옛 본성의 죽음을 인정하고, 새사람의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더욱 새로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곳, 곧 위의 것을 추구한다.⁵²⁾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산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땅 위에서 영위되는 삶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삶을 의미한다. 성례는 이러한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삶에 힘을 공급해준다.⁵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

48) *ibid.*, 3-4:4-6,5:15.

49) 'n Gebed voordat uit de kategismus onderrig gegee word.

50) Dordtse leerreëls, 3-4:12,16,17.

51) Heidelbergse kategismus, 88, 45.

52) *ibid.*, 49,115.

53)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35

도하고, 영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 투쟁에서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⁵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에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서술에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존재 구성적 이원성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은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원성 모두가 타락의 결정적 영향 아래 있고, 특히 영적 차원이 타락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원성에 대한 구별 표현이 존재 구성적 이원 요소 사이의 구별과 관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둘 모두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서 각자 안에서 그리고 전체에서 대립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원성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창조와 타락, 특히 타락과 구속사이의 이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성적인 것이 타락과 동일시되고, 영적인 것은 구속과 동일시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적인 것(die geestlike)과 영혼(siel)을 항상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5. 이원적 구조를 암시하는 표현들의 구체적 의미

인간의 이원성을 함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들 중에 위에서 논의한 육체와 영혼 외에도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예배문서는 인간에 대한 다른 용어들도 사용한다. 개혁교회 신앙고백문서와 예배문서들의 맥락 안에서 육체와 영혼과 더불어 그 주요한 표현들의 함의를 분석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4) Heidelbergse kategismus, 118,127; Formulier vir die ban of afsnyding van 'n lidmaat van die gemeente.

1) 영혼(siel)과 영(gees)

영혼은 육체(liggaam) 혹은 육신(vlees)과 함께 항상 한 쌍으로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영혼은 육신 안에 존재하는 존재의 중심이며 고유한 자기를 지칭한다. 영혼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고, 영혼이 육체를 통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혼의 구원은 구원전체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영혼의 핵심적 기능은 합리성이며, 고통과 슬픔과 놀람 등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감정 기능을 한다. 그래서 언어, 사고, 열망 등이 영혼의 기능에 속한다. 그러나 영혼이 항상 단일 표현으로 인간 내면 전체를 표현하는 말은 아니기에,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표현들과 나란히 사용되기도 한다.

영혼은 기원이 신적인(Goddelike)것이 아니라 인간적인(menslike)것이며,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혼은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중심적 실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제물 되심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해 불결한 영혼을 씻기고 깨끗하게 한다. 성찬과 말씀은 영혼을 영생하도록 먹이는 음식과 음료이며, 하나님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혼을 활력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영혼에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신다. 영혼은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므로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사후 즉시 그리스도께 취해지고 부활의 시점에 육체와 다시 연합된다.⁵⁵⁾

55) Geloofsbelijdenis van Atanasius, 32;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서문, Art.37; Heidelbergse kategismus, 11,26,37,44,57,69,75-76,79,94,109; Dordtse leerreëls, 2:1; Formulier vir die bediening van die heilige doop aan kinders, sonde; Formulier vir die viering van die heilige nagmaal, lofverheffing; 'n Gebed voordat uit die kategismus onderrig gegee word; 'n Gebed nadat uit die kategismus onderrig gegee is; Gebed vir krankes en aangevogenes; Die aangebed.

이주 드물게 사용된 영(gees)은 영혼과 동일한 개념이다. 그래서 인간의 영도 신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menslike) 것이며, 인간의 영은 인간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다.⁵⁶⁾ 그러나 아주 일반적인 용어인 영혼에 비하여 영이라는 표현은 개혁교회신앙고백문서와 예배문서에서 인간에 대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2) 마음(hart)과 지성(verstand)

마음은 인간 존재의 내면적 중심을 표현하는 말이다. 생각과 열망이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마음은 존재의 표면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보여주는 함의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그런데 이 마음이 타락의 결과 어둡고 닫힌 상태가 되었다. 성령은 마음에 역사하여 마음을 여시고, 밝혀주시고, 성경과 복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새로운 자질을 마음에 부어주시고, 성령로 마음을 강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⁵⁷⁾ 개혁교회 신앙고백서 및 예배문서에서 마음은 앞서 정리한 영혼과 동일한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존재의 중심, 성령의 역사, 진실성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마음에 적용된 함의들은 지성(verstand)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타락은 인간의 지성에 영향을 주어 지성의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지성을 열어주시도록 혹은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한다. 또 마음은 지성에 이어 의

지(wil)와 나란히 표현되기도 한다. 창조 시에 의지는 의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타락이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구속의 결과 하나님은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부어주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신다. 인간의 잠재능력(vermo?)인 지성(verstand)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태도로, 또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⁵⁸⁾

3) 육체(liggaam)와 육신(vlees)

육체는 현세적인 몸을 의미하고, 영혼과 함께 인간의 전체를 이루며, 영혼에 의해 생명을 공급받고, 영혼의 통치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나란히 열거될 때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체가 영혼에 앞서 언급된다. 육체는 종종 인간적인 본성(menslike natuur)과도 동일시된다. 타락의 결과 육체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음에 복속되었고,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죽지만 부활의 시점에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한다. 부활의 때에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한다. 현세에서도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동시에 육체도 영혼과 함께 성령의 전이므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⁵⁹⁾

육신(vlees)은 육체보다 덜 사용되기는 하지만 육체와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어 영혼(siel)과 함께 한 쌍으로 인간 전체를 표현한다. 육

56)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 19.

57)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5 ; Heidelbergse kategismus, 21, 65, 76, 89-90, 94, 102, 113, 126, 129; Dordtse leerreëls, 3-4:11, verwerping van die dwalings, 6; Die môregebed.

58) Dordtse leerreëls, 3-4:1,11,12; Formulier vir die bevestiging van sendinge, Gebed; Gebed voordat uit die kategismus onderrig gegee word; Die aandgebed;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13.

59)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Art.18,19; Heidelbergse kategismus, 1,11,23,26,34,37,57,75-76,109; Dordtse leerreëls, 2:1, Formulier vir die viering van die heilige nagmaal, Gebed.

신은 인간적인(menslike) 것이며, 피와 함께 인간적인 본성을 이룬다. 육신은 약하며, 악하고, 무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된다.⁶⁰⁾

그러나 육체와 육신의 속성이나 기능에 대하여 개혁신교회 고백문서와 예배문서는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는다. 특히 영혼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그 설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영혼에 비하여 결코 무시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영혼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영혼과 함께 인간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4) 영적인 것(die geestlike)과 육체적인 것(die liggaamlike)

영적인 것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것과 한 쌍으로 인간의 본성과 삶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표현은 하늘에 속한 것(hemelse)과 의미 보충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창조 시에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영적 의미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영적으로 새롭게 살리고, 치료하고, 개선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자원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은 영적인 음식이며,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적 축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필요를 위해 그리고 영적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한다.⁶¹⁾ 따라서 영적인 것이란 하나님

60) Heidelbergse kategismus, 35; 'n Gebed vir al die behoeftes van die gelowiges, om gebruik te word op die rusdag na die eerst preek; Gebed vir krankes en aangevogtenes; Gebed by die opening van die kerklike byeenkomste.

61) Nederlandse geloofsbelydenis, Art.14,35; Heidelbergse kategismus, 118; Dordtse leerreëls, 3-4:4,16; Formulier vir die ban of afsnyding van 'n lidmaat van die gemeente; Formulier om 'n afsnyde lidmaat weer in die gemeent an Christus op te neem, vrae; Gebed voor die ete; Gebed vir krankes en aangevogtenes.

께 속한 것, 혹은 그것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개혁신교회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이 우리 자신의 영(ges)과 관련되어 의미 있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신적인 것(die Godde-like)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었다.⁶²⁾ 따라서 이 표현은 인간에 대하여는 사용되지 않는다.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함께 한 쌍을 이루는 인간의 본성과 삶의 특성 표현이다. 육체적인 것은 현세적인 것(tydelik) 그리고 땅에 속한 것(aardse)과 더불어 의미 보충적으로 사용 된다. 육체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에 직면해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⁶³⁾ 개혁신교회 신앙고백서 및 예배문서에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본성과 삶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고 있다. 물론 육체적인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훨씬 많다.

5) 종합적인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대한 요구에서 언급된, 온 마음(hele hart), 온 영혼(hele siel), 온 지성(hele verstand), 온 힘(al ons kragte)을 다해야 한다는 표현은 특별하다.⁶⁴⁾ 이 문장에서 마음과 영혼과 지성과 힘이 모두 함께 열거되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존재구조의 어떠한 특정부분을 세심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의 개별 표현들은 기술적인 존재 구성개념이 아니라 중복적

62) Nederlandse geloofsbelydenis, Art.2, 26.

63) Nederlandse geloofsbelydenis, Art.14, 35; Heidelbergse kategismus, 118.

64) Heidelbergse kategismus, 4; Formulier vir die bediening van die heilige doop aan kinders, Dankbaarheid; Formulier vir die bediening van die heilige doop aan volwassenes, Verlossing.

이며, 모두 함께 인간 존재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이제까지 개혁신학회의 신앙고백서들과 예배문서들에 표현된 인간에 대한 이원적 표현들의 분석을 근거로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원론의 인식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이원적 구성개념 곧 육체와 영혼은 철저한 구별개념 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전체성을 표현하는 한 쌍이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은 존재의 두 부분으로 표현되었으나 양자 사이의 긴장과 대립적 성질에 주목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모두 함께 인간의 전체성을 표현하려는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나란히 사용되고 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전 과정에서 그 양자는 함께 같은 영향을 받았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이나 영혼 없는 육체개념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둘째, 인간의 영혼은 고대의 일반적 이원론처럼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적 기원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신적 자질을 가진 것으로 승격되는지도 않는다. 따라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영혼(siel)은 완전히 인성에 속한 것이며, 타락의 결과 죄의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의 실제적 중심이다. 우리 말 표현의 영혼(靈魂)은 이 개념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영혼은 일반적으로 우리 언어에서 순전히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영(靈)과 관련된 함의를 갖지만, 네덜란드 언어에서 영혼(siel, ziel)은 종교적 언어 일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심

리학(sielkunde, zielkunde)으로 연결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영혼 개념이 가진 함의에는 우리만의 영혼이라는 언어적 함의의 차이도 있고 그 차이도 혼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육체는 비록 죽음에 복속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하찮은 부분이 아니다. 육체가 비록 영혼의 지도를 받지만 인간은 육체로 지음을 받았고,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오며, 육체는 인간의 영혼과 더불어 인간존재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육체도 영혼과 꼭 마찬가지로 타락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아야 하고, 또 영혼처럼 깨끗한 삶의 요구를 받고 있고, 영혼처럼 영생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표현에 있어 육체는 순서에 있어 겨우 몇 차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영혼에 앞선다. 따라서 육체를 비하시키거나, 존재로서의 육체 자체가 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낯설고 거부되는 개념이다.

넷째, 이원성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이라는 인간존재구성개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구원 및 기독교적 삶의 교리 전반에 전제된 구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원성을 기초로 한 구원교리, 성례와 말씀과 기독교적 삶도 이원성 구도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되고 있다. 물론 성례와 말씀과 기독교적 삶에 전제된 이원성은 존재론적 구도도 전제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차원적 혹은 방향적 구도로서의 이원성이다. 여기서 영혼과 관련된 영적인 것은, 육체와 관련된 육체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만 초월적인 차원이며, 삶에서는 그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원적 구도는 그것이 존재론적이든, 아니면 초월적이고 방향적인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론적 혹은 인본주의의 이원론과는 다른 함의를 가진 채, 기독교교리를 설명하는 보편적 방식이 된 것은 사실이다. 이원론 혹은 이원성의 문제는 인간존재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구조자체를 모두, 그리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화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들은 인간이해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원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문화의 일반적 이원론의 함의와 달리 통전적인 인간이해를 향한 통찰과 함의를 동시에 주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문서에서 어떤 사람들은 서양문화에서 이전에 익숙했던 인간학적 이원론을 수용하면서도 그 차별성을 구별하려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성경적 통찰에 비추어 서양문화의 이원론이 지닌 실제론적 문제점을 강하게 배격하고 따라서 통전적인 인간이해를 철저하게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인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이원론을 비판하는 기독교철학자들도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들을 직접 비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개혁신교회 신앙고백 및 예배문서는 한국교회에 비성경적인 이원론적 요소를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구원과 삶에서의 실제인 이원적 구조의 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를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참고도서

Psalms, NG Kerk-Uitgewers

- Die Ekumeniese Belydenisskrifte (Die Apostoliese Geloofsbelijdenis, Die Geloofsbelijdenis van Nicéa, Die Geloofsbelijdenis van Atanasius)
- Die Drie Formuliere van Eenheid (Nederlandse Geloofsbelijdenis, Die Heidelbergse Kategismus, Die Dordtse Leere?ls)
- Die Liturgiese Formuliere
- Christelike Gebede
- Kerkorde van die Gereformeerde Kerke in Suid-Africa

Psalmen, Jongbloed-Heerenveen.

Berkouwer, G. C.,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81.

Blosser, P., Reconnoitering Dooyeweerd's theory of man, *Philosophia Reformata* 58(2), 1993.

Cooper, J. W., *Body, Soul & Life Everlasting: Biblical Anthropology and the Monism-Dualism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1989.

Fowler, S., The persistent dualism in Calvin's thought, (in B. J. van der Walt, ed., *Our Reformational Tradition: a Rich Heritage and Lasting Vocation*, Potchefstroom: PU for CHE, 1984).

Hoekema, A. A., *Created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Ridderbos, H., The Biblical words for man in the Pauline writings, (in A. H. De Graaf & J. H. Olthuis, eds, *Toward a Biblical View of Man: Some Readings*,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978)

Troost, A., Kritiek van dr. J.D. Dengerink op de antropologie van H. Dooyeweerd, *Philosophia Reformata*, 54(1), 1989.

Van der Walt, B.J., *Heartbeat: Taking the Pulse of Our Christia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Heritage*, Potchefstroom: PU for CHE(IRS), 1978a.

Van der Walt, B. J., *Horizon: Surveying a Ro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 Thought*, Potchefstroom: PU for CHE(IRS), 1978b.

Van der Walt, B. J., *Antheunis Janse van Biggekerke 1890-1960*, Potchefstroom: PU for CHE, 1989.

Von Meyenfeldt, F. H., The Old Testament meaning of heart and soul, (in A. H. De Graaf & J. H. Olthuis, eds, *Toward a Biblical View of Man: Some Readings*, Toronto: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 1978).